



푸른 바다 위에 그린 수묵화 먹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위치한 준보전무인도서 먹도

잔잔한 바다에 안개가 자욱할 땐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하게 한다.

다양한 지질현상과 풍부한
영양염류로 고기 마을 날이 없다.



해양수산부는 7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위치한 준보전무인도서*인 ‘먹도’를 선정했다.

* 보전 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건축물·인공구조물 설치, 동·식물의 포획·채취, 취사·야영 등)하거나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먹도는 인근의 유인도인 덕적도에서 남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 면적은 약 22.5만㎡ 규모이다. 짙은 암석이 대부분인 먹도 해안가와 주변 해역 바다색은 잿빛 또는 검은색을 띤다.

항해 장비가 발달하기 전, 예전 어부들은 먹도를 이정표로 삼아 위치를 확인하였다. 검은빛으로 길을 잡아주는 섬, 까맣고 단단한 섬이라고 해서 ‘먹통도’, ‘묵섬’ 또는 ‘흑도(黑島)’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잔잔한 바다에 안개가 드리울 때 보이는 먹도는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한다.

먹도에서는 다양한 지형과 지질학적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섬 가장자리에는 파도에 침식된 절벽과 큰 돌이 흩어진 해안, 모래해안, 해안동굴 등이 발달해 있어 작은 규모의 해양지질공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섬 상부는 소나무와 소사나무 군락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해수부 무인도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먹도에는 3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검은머리 물떼새, 가마우지, 갯이갈매기 등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먹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와 인근 관광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 및 옹진군 관광문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